

# 2024년 미국 고용전망

**Randall W. Eberts** (Senior Researcher,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 머리말

2024년은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2016년 대선과 거의 같은 모습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두 차례의 선거 때와 같은 후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많은 이들이 대선에 나서기에는 너무 고령이라고 생각하는 80대 후보 외에는 내세울 만한 새로운 후보가 없다(공화당 후보도 불과 4살 아래이기는 하지만).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의회에서는 다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불과 몇 석 앞서고 있으며 상원은 그보다 더 적은 의석 차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중간선거의 반전에 의한 것으로, 향후 선거 결과가 어떠할지는 확실치 않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인 대부분은 2007~2009년 대 침체 직후 미국 경제를 지배해 온 저인플레이션보다 최근의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Economist와 YouGo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일자리 및 경제와 함께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21%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10%는 일자리와 경제를 선택했다. 많은 미국인에게 이민 문제는 당면한 경제적 이슈가 아님에도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일자리와 경제 전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불과

약 2%p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는 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더 잘 보여준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전화 및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들의 정부 기관 및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인의 약 63%가 미국 정치체제의 미래를 전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방정부를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해 7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신뢰도 하락에는 대법원도 포함되는데,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두 단어는 “분열”과 “부패”였다. 응답자들은 정치인과 함께 언론에도 책임을 돌렸다. 10명 중 약 3명(28%)이 양당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30년간의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어느 당도 자신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응답률도 이와 비슷했다. 대선의 열기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의 자질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은 부패와 분열이 지나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느 한 당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당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과거보다 더 양극화되어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당파적 분열은 수십 년 전보다 더 심화되었으며, 많은 미국인이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체제의 긍정적인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응답자들이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sup>2)</sup>

## ■ 연방준비제도

지난 2년 동안 연준은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서 싸워왔다. 일부 언론인은 40년 전 연준이 18%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연준이 현재 직면한 인플

1) The Economist와 YouGov가 미국 시민 중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6~1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로, 조사 결과 전체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d3nkl3psvxxpe9.cloudfront.net/documents/econtoplines\\_FBzrwMv.pdf](https://d3nkl3psvxxpe9.cloudfront.net/documents/econtoplines_FBzrwMv.pdf)

2) Pew Research Center(2023), “Americans’ Dismal Views of the Nation’s Politics”, <https://www.pewresearch.org/2023.12.14>.

레이션은 당시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감당해야 했던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높다. 15년 전 미국이 대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당시 연준은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인하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일부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자금을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관행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 저금리 기조로 경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과잉부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흥미로운 점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처에 핵심인)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유일한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Economist와 YouGov의 여론조사에서 각각의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인플레이션 및 물가에 대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는데(다소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94%), 이들은 현 정부가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약 5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매우 반대 44%, 다소 반대 13%). 연준도 그다지 잘하고 있지는 않다. 갤럽 여론조사는 정기적으로 응답자에게 특정 연방기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전체는 하이브리드 조직이다. 12개 회원은행은 민간은행 부문이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D.C.의 연준이사회는 연방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연방준비제도 전체를 연방기관으로 간주한다. 2023년 10월 갤럽 여론조사 응답자의 36%는 연준이 훌륭하게 또는 잘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sup>3)</sup>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했던 2021년 여론조사 결과인 44%<sup>4)</sup>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현 정부가 고인플레이션에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정책과 관련이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첫해에 의회가 통과시킨 2조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 계획으로 가계 대차대조표 규모는 약 5조 달러로 증가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쇼핑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며 그에 따라 저축이 늘어난 결과, 과잉통화량이 너무 적은 상품과 서비스에 몰리게 되었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가격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3) Gallup, "Government Agency Ratings Remain Largely Negative", 2023.10.12.

4) Gallup, "Government Agency Ratings: CIA, FBI Up; Federal Reserve Down", 2022.10.5.

## ■ 2024년 전망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미 전역의 저명한 예측 전문가 34인으로부터 몇 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수집한다. 글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근 전망은 2023년 11월 13일에 발표된 것이다.<sup>5)</sup> 예측가 패널은 2023년 4분기와 2024년까지의 경제가 3개월 전 마지막 조사를 실시했을 때보다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다. 202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조사보다 0.1%p 더 높은 연율 1.3%로 전망됐다. 연평균으로 보면 2023년 실질 GDP 전망치가 2024년보다 높은데,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0.3%p, 0.4%p 상향되었다. 즉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조사 전망치인 1.3%에서 1.7%로 높아졌다. 예측에 따르면 실질 GDP는 2024년 1분기에 타격을 받은 후 2023년 실질 GDP 예측치인 2.4%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2026년 이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실업률은 2023년 3.7%에서 2024년 4.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3개월 전 조사보다 각각 0.1%p 높아진 수치이다. 직전 조사보다 실업률 전망치가 증가한 것은 2024년 전 분기 및 2024년 연간 급여가 직전 조사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비농업 취업인구는 월 29만 6천 명 증가하는 반면, 2024년에는 월 12만 명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각 연도 모두 직전 조사의 전망치보다 높아졌다.

예측 전문가들은 2023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로 2025년까지는 연준의 목표인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2024년과 2025년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은 각각 2.5%, 2.3%로 예측된다. 헤드라인 PCE는 더 빠르게 소폭 감소해 2025년에는 2.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2025년 말까지는 여러 분기가 남아 있고 그에 따라 조사도 여러 번 실시되기 때문에 예측은 바뀔 수 있다.

## ■ 최저임금

의회는 1980년 이후로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많은 주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의회가 1938년에 최초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최저임금과

5)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2023), "Fourth Quarter 2023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https://www.philadelphiafed.org/> (2023.12.21).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개정된 때는 2009년 7월 24일이었다. 그후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머물러 있다. (CPI-U-RS, CPI-U-X1 및 CPI-U에 연동된 CPI-U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명목금액인 10.33달러도 여전히 미국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재 의회에는 2028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EPI가 2023년 임금인상법안(Raise the Wage Act)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2,780만 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간 3,100달러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0개 주와 워싱턴D.C.는 자체 최저임금을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27개 주와 42개 시 및 카운티는 인플레이션 조정 및 기타 도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근무하는 관할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한 원격근무자가 500인 초과 기업의 최저임금이 20.29달러인 워싱턴 주 투켈라(Tukwila) 시에서 일하는 경우, 연방 및 주 최저임금이 그보다 낮더라도 시간당 최저 20.29달러가 지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도시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지만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 주 투켈라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 캘리포니아, 뉴욕 및 워싱턴 주는 2024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인데, 그중 워싱턴 주가 16.28달러로 가장 높고, 뉴욕 주의 경우 뉴욕 시 사업체의 노동자에게는 최저 16달러, 그 외 노동자에게는 최저 15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1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sup>6)</sup>

6) (노동부 규정에 따라) 급료 기준으로(on a salary basis) 보수를 받는 경영진, 관리직, 전문직 및 외부 영업직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조항이 모두 면제된다. 최저임금법은 연간 총매출 또는 사업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주 간(interstate) 상거래에 종사하거나 상거래를 위한 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라면 그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주 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관리인 및 유지보수 직원과 같은 기타 노동자도 FLSA의 적용을 받는다. 각각의 주, 카운티 및 시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자체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 작업중단(Work Stoppages)

미 노동부는 1천 명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을 대규모 작업중단으로 정의한다. 파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에 23건의 대규모 파업 및 작업장 폐쇄로 12만 600명의 유휴노동자가 발생했다.<sup>7)</sup> 2020년에는 8건, 2021년에는 16건의 대규모 작업중단이 발생한 바 있다. 2022년에 발생한 23건 중 14건은 민간산업 부문, 9건은 정부 부문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교사 파업이었다.

2023년 8월은 최근 20년간 어느 달보다도 작업중단 건수가 많았다.<sup>8)</sup> 한 달 후,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이 자동차 공장 3곳에서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수십 년 만에 자동차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파업은 임금 및 복리후생 협상이 시작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44개 이상의 시설에서 노동자 3만 명 이상이 일터를 떠났다. 현재 미국 노동자들은 25년간 목격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월 근로손실일 410만 일은 1983년에 발생했던 손실일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2023년 1~9월까지 누적 근로손실일은 1,100만 일에 달한다. 2023년 8월과 9월에만 770만 일 이상의 근로손실일이 발생했고, 10월과 11월 두 달간 560만 일이 더해져 2023년에 총 1,600만 일의 근로손실일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sup>9)</sup>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의 근로손실일은 96만 6천 일에 불과했다.

2023년 1~9월 사이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은 TV 산업 노동자 파업이었다. 2023년 5월 미국서부작가조합과 미국동부작가조합이 가장 먼저 파업을 시작했으며, 7월에 영화배우조합-미국 TV 및 라디오 예술가 연맹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가조합 노동자 120만 명과 영화배우조합 예술가 88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이 그들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었다.

7) 노동부가 작업중단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한 것은 2022년이다. 글 작성 시점에 2023년 작업중단에 대해서는 10월까지만 데이터가 있는 상태로, 아직 2개월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8) 2023년 8월과 2000년 8월 모두 근로손실일이 410만 일 넘게 발생했으며, 2000년 8월의 근로손실일이 조금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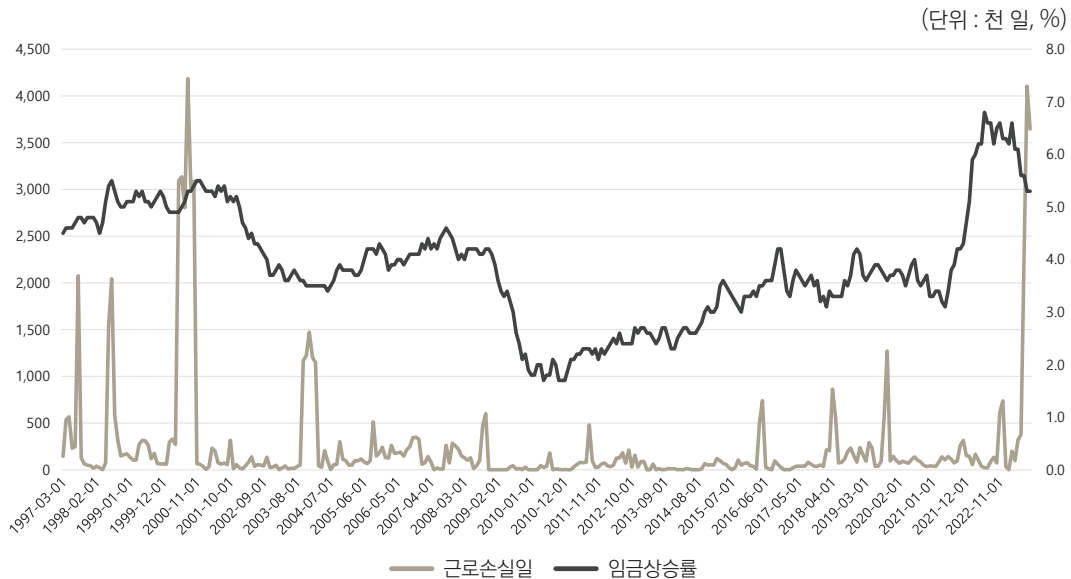
9) 아직 예비수치이기는 하나, 2023년 10월의 근로손실일은 2023년 8월 수치를 확실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 자발적 퇴직(Quits)

많은 전문가는 작업중단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발적 퇴직과 임금상승을 꼽는다. 2023년 9월 자발적 퇴직률은 약 2.5%(계절 비조정)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다. 2013년의 자발적 퇴직률은 1.7%로 2023년보다 훨씬 낮았다.<sup>10)</sup>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는 지표가 수집된 이래 가장 높은 3.0%를 기록했고, 이는 많은 노동자에게 구직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었다. 또한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자발적 퇴직률이 감소하여 추세를 밀돌고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 직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쉽기 때문에 높은 자발적 퇴직률을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 [그림 1]에서

[그림 1] 연도별 근로손실일(좌) 및 임금상승률(우)



자료: 미 노동통계국의 자발적 퇴사 데이터(<https://www.bls.gov/wsp/data/tables/>)와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상승추적 데이터(<https://www.atlantafed.org/chcs/wage-growth-tracker/>, 가중치)를 필자 정리.

10) 자발적 퇴직률은 총 자발적 퇴직건수를 월별 또는 기타 원하는 기간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다. JOLTS(미 노동통계국 구인 및 이직 보고서)의 모든 비율은 노동자 수로 나누기 때문에 모두 공통 분모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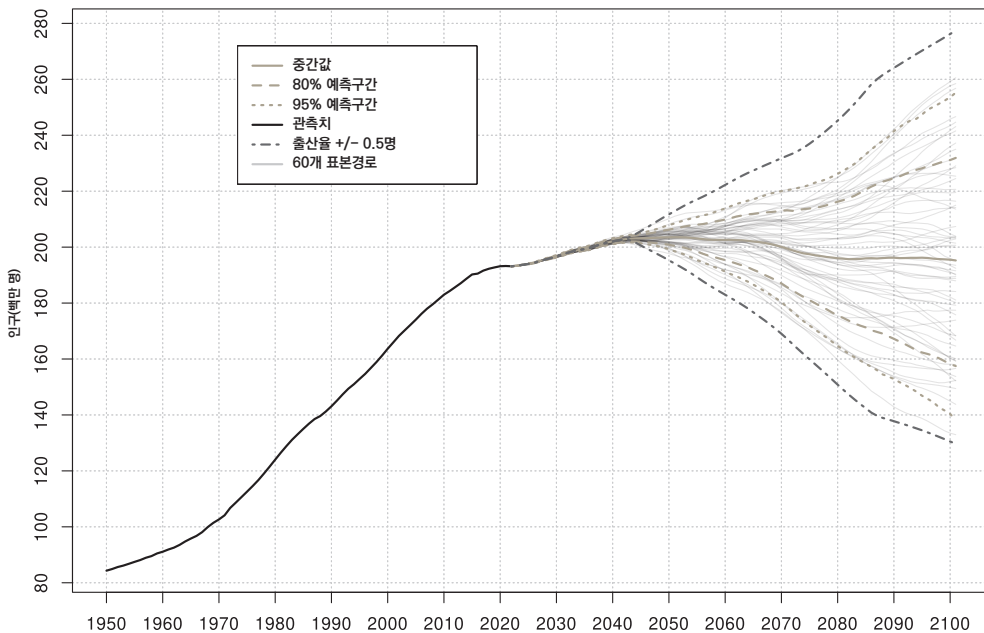
볼 수 있듯이 파업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임금상승과 누적 근로손실일의 관계는 시차를 두고 관찰된다. 먼저 임금이 상승하고 수개월 내에 파업 발생률이 높아진다. 임금과 자발적 퇴직률이 모두 높아지면 노동자가 파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특히 노동자의 임금이 장기간 인상되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다.

## ■ 인구 증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성장지역으로, 인도는 206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조만간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UN 전망에 의하면 미국의 핵심생산인구(prime age residents, 20~64세)는 2050년 이후

[그림 2] 연도별 미국 인구(20~64세)에 대한 UN 전망



자료: United Nations(2022), "Population Division –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https://population.un.org/wpp/Graphs/Probabilistic/POP/20-64/840/> (2023.12.19).



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인구 둔화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은퇴자에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은퇴하고 있거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팬데믹과 소득 수준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인구 집단, 특히 고령자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치들은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 전망에 의하면 미국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이민 유입에 기인한다. 2045년경에는 출생과 사망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25년경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민 유입은 연간 약 10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민은 현재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지만 여전히 미국 인구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 ■ 맺음말

2024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그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누가 대선에 출마할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공화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과 대통령 재임 시절의 행위들로 인해 여러 건의 형사 및 민사 기소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후보는 소속 정당에서조차 너무 고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 대선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는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전당대회는 보통 여름에 개최되지만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예비선거는 2024년 1월 15일에 열렸다. 여론조사에서는 현 대통령과 그의 도전자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대선 결과를 예측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후보자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KLI**